

「오카야마시장 메일메거진 (124)」 2019년 12월 9일호

【시부노 선수, 고향 오카야마에 웃는 얼굴로 돌아오다】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12월 6일에 위민스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제패하는 등 올해 활약한 프로 골퍼 시부노 히나코 선수가 국내 투어를 마치고 오카야마시로 돌아왔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시부노 선수의 역사적인 위업을 기리기 위해 본시 스포츠 분야의 최고상에 해당되는 오카야마시 히토미 키누에 스포츠 '오카야마 스포츠 영예상'의 표창식을 실시했습니다.

수상식 전 제가 시부노 선수에게 프로 1년째였던 작년과 크게 발전한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봤더니 시부노 선수는 「기술도 성장했지만 마음 변화가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5월 국내 4대 대회에서 첫 우승한 후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껴서 더 이상 우승 못 할 것 같다.」며 불안해 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저를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골프를 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한 결과 8월 여자 오픈 골프를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국내 투어 4승, 상금 랭킹 2위 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상식에서 시부노 선수는 「위민스 브리티시 여자 오픈 우승 했을 때 외국분들이 ' 웃는 얼굴로 골프를 해주어서 고맙다' 는 말이 정말 기뻐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일본,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골프로 웃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 오카야마 대표로서 오카야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에 뻗어 나가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표하였습니다.

시부노 선수, 1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작년 서일본에서 발생한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부노 선수의 고향인 히가시구 히라지마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카야마 전체가 시부노 선수의 우승 소식으로 매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선은 고향 오카야마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푹 쉬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활약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